

제 작 : 문희원 박지인 서주미 하유빈

\_\_\_\_\_ 귀하

각 본 : 임희진

촬 영 : 최성원 박호선

연 출 : 고미리 박현수

# 적기춘

제작·기획



I-MU!

## S#1 실외. 길거리 - 오후

지원 (V.O) 여보세요.

귀에 대고 있는 핸드폰 (E.C.U.)

원장 아, 네 저번에 연락 드린 김은숙입니다.

지원 아, 네네.

원장 어떻게 이사가신 곳에서는 잘 지내세요?

지원 (긴장한 목소리로 일부러 오버하며) 아... 네, 그럭저럭이요.

일자리도 없어서 바듯하게 살고 있죠. 뭐, 일자리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원장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해주셨던 그 집, 도와줄 수 있다는 분이 계셔서요.

지원 (살며시 미소를 띄며) 아, 정말이요? 그러면 연락처랑 주소 좀 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 네,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지원 네, 제가 문자 남겨 주신 곳으로 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내리고 보이는 지원의 얼굴 (E.C.U.)

## S#2 실외. 아파트 복도 - 오후

어둑해진 하늘. 그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지원. 고요한 빌라 복도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만 들린다. 한 손엔 휴지세트를 들고 캐리어를 끌고 있는 지원의 뒷모습. 허름한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한 지원. 문 앞에 서서 휴대폰과 문을 번갈아 쳐다보며 서있다.

## S#3 실내. 집, 입구와 거실 - 오후

라면 인서트. (V.O) pingpong 소리.

봄 (놀라며) 어? 왔다! (냄비에 비치는 문 쪽으로 가는 봄)

안에서 우당탕탕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시간이 지나 복도의 불이 꺼진다. 문을 열어주는 봄.

봄 (밝은 목소리로) 아, 어서 오세요!

지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한 뒤 신발을 벗고 고개를 들어 방을 둘러본다.

앞에 서 있던 청석과 눈이 마주친다.

지원 안녕하세요. (휴지를 건네며) 이거 휴지….

청석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아,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있는 봄. 청석이 끓인 라면이 테이블 위에 있다.

봄        저... 혹시 방금 라면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지원     (주춤거리다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리다) 아... 네.

거실 식탁에 다같이 앉아 있다. 청석, 라면을 퍼 주려 면을 젓고 있다.

라면 먹을 준비를 하는 듯, 머리를 묶는 봄.

청석이 라면을 퍼주는 인서트와 지원의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

봄        저... (V.O.) / 선생님이랑 어제 통화했어요. 지낼 곳이 필요하다면서요?

지원     (어색한 듯 입을 다물고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봄        저는 신봄이라고 (V.O.) / 하고요. 스물 한 살이에요. (청석에게 눈짓한다)

청석, 지원에게 라면을 건네준다.

청석     저는 이청석이라고 하고요. (턱으로 봄을 가리키며) 애랑 동갑이에요.

청석에게 라면을 건네 받는 지원. 라면 그릇을 보다가 고개를 든다.

지원     아, 저는 홍지원이에요. 나이는 똑같이 스물 한 살.

다시 라면을 쳐다보는 지원. 어색한 공기 속에 눈치를 보다 봄이 먼저 입을 연다.

봄        저희 둘은 (V.O) / 뭐 사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은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지원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청석     이제 드셔도 돼요.

라면을 젓가락으로 뜨는 지원.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 탓에 눈치를 보다 라면을 내려 놓는다.

봄        뭐 저희랑 (V.O) / 한 3일만 같이 지내시면 가족같이 편해지실 거예요.

말이 끝나기 전에 라면을 맛있게 먹는 봄. 그런 봄을 보며, 지원은 신기하다는 듯  
          푹어져라 쳐다본다. 아랑곳 않고 계속 라면을 먹는 봄. 시선이 느껴진 듯, 고개를 든다.

봄        (먹다가 고개를 들고) 그러려면 일단 말부터 놓을까요 우리?

지원     (봄과 시선이 마주치자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는 꼬덕거리고 웃으며) 그래, 그러자.

조금 빈 라면 냄비 인서트.

## S#4 실내. 집, 입구 - 밤

양치를 한 뒤 화장실에서 나오는 지원.

**봄** (방을 가리키며) 일단 먼저, 여기는 내 방. 옷은 여기서 갈아 입으면 돼.

침대가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이청석이랑 둘이 방에서 잘래?

**지원** 아니야. 괜찮아. 청석이랑 거실에서 자도 돼.

**봄** 그건 이따가 얘기 좀 해보자. 여기는 화장실. 생각보다 좀 좁지. 그래도 물은 잘 나와.

**지원** 내가 살던 곳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봄** (놀란 듯 지원을 쳐다보며) 아, 진짜? 하긴, 우리도 지원 받은 거니까.

**지원** 뭐, 자취방이 다 그렇지.

**봄** 여기는 빨래방. 우리도 빨래할 때 말고는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안방, 화장실 하나,

부엌, 거실, 빨래방, 베란다. 이게 집 소개 끝. 저 방에 짐 풀고 와. 대충 정리해줬어.

**지원** 알겠어. 정리하고 나갈게.

## S#5 실내. 집, 옷 방 - 밤

방을 나가는 봄을 뒤로 하고, 문을 닫고 캐리어와 가방의 짐을 하나하나 꺼내는 지원.

차근차근 짐을 정리하다, 소중하게 포장된 마지막 상자 하나를 두고서 가만히 쳐다본다.

수첩을 드는 지원. 수첩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 하나가 꺼있다. 사진을 뒤집어 천천히  
읽어 보는 지원. 밖에서 지원을 부르는 청석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만히 멍을 때리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선 대답을 하는 지원.

지원 (사진을 대충 수첩에 끼우고 수첩을 단상 위에 올려두며) 어, 어. 나 이제 정리 다 해서  
나가.

## S#6 실내. 집, 입구 - 밤

지원, 문을 열고 나온다. 봄은 거실 소파에서 폰을, 청석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다.

방금 얼굴을 씻은 청석. 헤어 밴드를 하고 있다.

청석 (칫솔을 들어올리며) 지원아, 이 칫솔 네 거야?

지원 어. 내 거야.

봄 (화장실에 들어가려 옆을 지나가며) 야, 저녁 먹었더니 벌써 열한 시다. 난 아침에  
편의점 알바 있어서 일찍 자야 해. (장난스럽게) 이청석은 늦게 자도 되니까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

청석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봄이 가는 길을 막으며) 오붓한 시간은 무슨. 나 내일 면접  
있거든? 지원아, 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씻어.

청석, 지원의 등을 민다.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지원.

봄 아, 야!

봄은 살짝 열 받았다는 듯이 청석을 째려보며 거실로 쿵쿵대며 간다. 재밌는 듯 웃는 청석.

## S#7 실내. 집, 화장실 안 - 밤

이 상황을 어색해하는 화장실 안 지원. 이후 칫솔을 바라본다.

쓴지 오래돼 솔의 모양이 망가진 칫솔 인서트.

## S#8 실내. 집, 거실 - 밤

면접 질문리스트를 보며 면접준비를 하고 있는 청석.

변기 물내려가는 소리가 겹치면서 봄이 빼꼼 한다.

봄 (안방에 들어가며) 야, 나 잔다. 잘 자, 지원아.

지원 어, 너도.

지원의 말이 끝나고 봄은 방에 들어가고 지원은 청석 쪽을 바라본다. 청석과 지원이 빨쫘하게

시선을 마주한다. 청석은 지원이 잘 준비를 다 했다는 것을 미처 몰랐었다.



청석 어... 이제 슬슬 잘까?

지원 어, 그럴까?

청석 좀 편하게 누워.

지원 어, 나 많이 불편해 보여?

청석 그렇게 자면 담 걸릴 것 같은데.

제 장난에 반응이 없어 머쓱해하는 청석. 불을 끄고서, 지원의 옆자리에 눕는다.

하늘을 보고 자다가 지원이 왼쪽으로 몸을 튼다. 이윽고 청석도 왼쪽으로 몸을 튼다.

## S#9 실내. 집, 거실 - 아침

전날의 어둑어둑한 분위기와 달리, 아침 햇살이 지원에게 내리쬐다. 눈이 부신 듯,

몸을 뒤척이는 지원.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아차, 싶은 듯 급하게 이불을

차고서 일어나는 지원. 분주하게 나갈 준비를 하는 봄과 청석.

봄 (머리를 묶으면서) 깻어? 야, 잘 자더라.

지원 (민망한 듯) 첫날이라 많이 피곤했나... 푹 잤어.

청석 옆에서 잘 자더라.

지원 (이불을 개며) 아, 나 잘 잤어?

봄 (물고 있던 빵을 빼고) 배고프면 너도 이따가 빵 먹어.

청석 아마 둘 다 여섯 시 정도 돼야 도착할 거야.

지원 알겠어, 집 지키고 있을게. 잘 다녀오고.

지원은 이불을 깬다. 봄은 방금 일어난 청석을 부른다.

봄 어? 야 잠깐 나 좀 봐봐. (머리를 갑자기 헝클어트리고는) 아, 이제 예쁘다.

청석 (궁시령 거리면서) 아, 나 바쁜데!

청석을 뒤로한 채 방으로 가방을 가지러 도망치듯이 가는 봄.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가자 청석은 이미 구두를 신고 있다.

봄 (신발을 신으며) 지원, 우리 나갔다 올게. 이따 봐.

문이 닫히고 고요해진 집 안. 지저분한 방 (F.S.)

물을 한잔 마시고 청소기를 돌리는 지원.

## S#10 실내. 편의점 안 - 낮

편의점 청소를 하고 있는 봄, 편의점에 온 손님에게 인사한다.

## S#11 실내. 중소 기업 건물 안 - 낮

중소기업 면접을 보고 있는 청석, 면접관에게 인사한다.

## S#12 실내. 집, 옷 방 - 낮

미아방지 목걸이 인서트.

단축 번호 1번(엄마)을 눌러 전화를 거는 지원. 없는 전화번호라는 안내 기계 음성 메시지. Rrrrr.

## S#13 실외. 동네마트 앞 - 오후

알바를 마친 봄이 청석과 전화를 하는 모습으로 교차 화면 전환.

봄      여보세요?

청석    야, 알바 끝났어?

봄      어, 나 이제 마쳤는데.

청석    근태 우리 뭐 손가락 같은 거라도 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봄      (오버하며) 역시 이청석. 나도 선물 사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성마트 건너편이거든?

          거기로 와.

청석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다. 먼저 보고 있어.

## S#14 실내. 집, 부엌 - 오후

집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지원. 폰 화면을 켜 시간을 확인한다.

여섯 시가 넘은 시간에, 서둘러 냉장고에서 대충 있는 반찬을 꺼내 상을 차린다.

상에 놓인 계란 프라이, 김치찌개, 밥. 타이밍 좋게 집에 도착한 청석과 봄.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 보인다.

봄 (밝은 목소리로) 우리 왔어.

청석 지원아, 혼자 잘 있었어?

지원 어, 왔어?

방문을 열며, 깨끗해진 집에 일부러 과하게 반응하며 지원을 찾는다.

봄 (자신의 방에서) 오, 쉬렷더니 일을 해봤네?

청석 야, 신봄보다 훨씬 낫다.

지원 일단 얼른 저녁이나 먹어.

청석 옷부터 갈아입고 나올게.

청석이 방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봄이 방에서 나온다.

## S#15 실내. 집, 봄의 방 - 저녁

봄이 나온 뒤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가는 청석. 위의 사진이 꽃혀 있는 수첩을 보게 된다.

원래 자신의 물건을 놓는 장소에 수첩이 있다. 수첩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다가 사진을

발견하게 된다. 사진의 장소가 어디서 많이 봤던 곳인 것 같아, 살며시 내용을 본다.

뭔가 생각에 잠긴듯한 청석의 표정 (E.C.U.)

## S#16 실내. 집, 부엌 - 저녁

청석이 방에서 나올 때 지원과 봄의 대화.

지원 (머쓱해하며) 맛있을지는 모르겠다. 빨리 먹어. 배고팠을 것 같은데.

봄 나 뭐든 잘 먹잖아.

청석 (의자에 앉으며) 잘 먹을게. 지원아.

식탁에서 장난을 치는 지원과 봄. 청석은 아까 본 쪽지 탓인지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별말을 하지 않는다. 배고팠는지 허겁지겁 저녁을 먹는 셋.

지원 (긴장하며) 어때?

봄 너 요리 배운 적 있어?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지원 (내심 좋아하며) 그냥 자취하고 보육원에서 동생들 밥 자주 챙겨 줘서 그런가.

청석 신봄은 할 수 있는 거 인스턴트 음식밖에 없는데.

봄 (장난스럽게 청석을 노려보며) 야, 이청석. 뭐라고?

청석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다.

봄 네가 먼저 했잖아.

지원 (살짝 웃으며) 둘 다 빨리 밥이나 먹어.

봄이 지원의 손가락에 시선이 쏠린다. 일회용 손가락과 젓가락 인서트.

봄 아, 잠깐만.

갑자기 일어나는 봄. 청석은 봄이 가자 결심을 한 듯 지원에게 말한다.

청석 (조심스럽게) 아, 맞다. 지원아,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그 수첩….

지원 수첩 왜?

청석 아니 거기 사진….

지원 (당황해 하며) 아…. 그 사진.

청석 그거 내가 처음 살던 곳 근처 교회인 것 같아서.

지원 (놀라며) 어?

청석 확실한 건 아닌데, 아마 맞는 거 같아. 그 교회.

지원 아,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청석 내가 제대로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어두웠던 얼굴에 희망이라도 보이는 듯, 한결 밝아진 얼굴을 하는 지원.

방에 갔다 온 봄은 아까 청석을 만나 사 왔던 선물을 꺼낸다.

봄 (앞으며)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지원 이따가 말해줄게.

봄 아.... 그래. 짜잔! (선물을 건네며) 이거 뭐게!

지원 (봄을 반히 바라보며) 이게 뭔데?

봄 야, 딱 보면 몰라? 새 입주자 축하 선물.

지원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는 거야?

청석 얼마 안 해. 받아.

선물 포장지를 뜯는 지원. 거기에는 칫솔, 수저 세트가 있다.

봄 (웃으며) 야, 좀 무드 없지. 그래도 이제 한 식구인데, 너만 이런 수저 쓰는 게

좀 그렇길래. 칫솔은 우리랑 같은 걸로 샀어.

지원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

지원의 칫솔 인서트.

## S#17 실내. 집, 화장실 - 오후 5시

오후 5시쯤 받은 칫솔을 물고서 이를 닦고 있는 지원. 여느 때 아침처럼 집에는 아무도 없다.

나갈 준비를 다 끝내고서 수첩을 들고 나가는 지원.

## S#18 실외. 집 앞 버스 정류장 - 오후 6시

지원, 버스를 기다린다.

## S#19 실외. 교회 앞 - 오후 7시

지원, 큰 교회 앞에 도착한다. 하지만, 교회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떼며 계속 망설인다.

결국, 앞에서 하염없이 사진과 문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기만 하다 발걸음을 돌린다.

## S#20 실내. 집, 거실 - 오후 7시

해가 다 저물고 나서야, 집에 막 도착한 지원. 집에 도착하니 봄이 거실에 앉아있다.

청석은 거실에서 자고 있다.

청석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지원아, 어디 다녀왔어?

지원 아, 그냥...



청석 그 교회 갔다 온 거야?

지원 어, 혹시나 엄마 볼 수 있을까 해서 가봤어.

봄 야,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잊고 사는데, 뭐. 기분이나 풀 겸. 오늘은 외식이나 할까?  
이청석도 좋대.

## S#21 실외. 편의점 앞 - 밤

봄이 앞장서고 뒤에서 청석과 지원이 뒤따라간다. 편의점 앞에 도착하는 셋.

봄 (뒤돌아보며) 여기가 오늘 외식 장소.

익숙해 보이는 표정을 띠는 청석과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지원.

청석 (지원을 쳐다보며) 여기 애 일자리. 애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

지원 아.... 그렇구나.

봄 (웃으며) 외식인데 편의점이어서 너 실망한 거 아니지?

지원 (웃으며 장난으로) 어 실망인데?

봄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궁시렁거리며) 어어, 편의점이 뭐가 어때서. 있을 거 다 있는데...

## S#22 실내. 편의점 안 - 밤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셋. 여러 가지 컵라면, 과자, 캔 맥주를 바구니에 담는다.

지원 근데 이렇게 많이 사도 돼?

봄 야, 이 누나 믿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청석 재 말 바꾸기 전에 더 골라 와. 신봄이 쓰는 거라 괜찮아.

지원 그럼 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지원도 장난스럽게 웃으며, 라면 구역 끝부터 끝까지 가리키며 다 담아도 되냐는 식으로 장난을 친다.

## S#23 실외. 편의점 밖 테이블 - 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나열해 놓는 셋. 어색한 분위기 속, 먼저 말을 꺼내는 봄.

봄 약간 뜬금없긴 한데. 지원아, 우리 첫인상 어땠어?

지원 어... 뭐, 너희?

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응, 나랑 이청석 첫인상.

지원, 봄의 질문에 답변을 고민한다.

지원 (봄을 쳐다보며) 너는 그냥 지금이랑 똑같은데. 성격 좋고 그냥 밝은 애구나 했지.

좀 동생 같았어.

봄 한 마디로 철부지 같다고?

지원 (손사래 치며)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앞에 있는 캔 맥주를 들이키는 지원.

당황한 지원이 웃긴 듯 지원을 바라보며 웃는 청석과 봄.

청석 그림, 나는?

지원 너는 (망설이다) 솔직히 말해도 되나? 첫인상만 봤을 때는 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 많이 무뚝뚝해 보여서.

청석 내가 미안. 워낙 낮을 가려서.

지원 아니,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말한 건 아닌데….

봄 야, 애 좀 그만 놀려.

웃으면서 술을 마시는 셋의 모습 (F.S).

## S#24 실내. 집, 거실 - 밤

집으로 돌아온 지원, 청석, 봄. 술을 걸친 탓인지, 한결 가깝게 붙어 있는 둘.

봄은 화장실로 들어가고 지원은 눕는다.

불을 끄고 청석이 눕는다. 취한 지원이는 벽에 붙어서 이상하게 눕는다.

FADE OUT.

## S#25 실내. 집, 거실 - 아침

잠에서 막 깨 비몽사몽한 상태로 나온 봄. 거실을 나와보니 청석이 지원의 얼굴을

가리킨다. 지원, 밤 그 자세로 우스꽝스럽게 자고 있다. 그것을 보더니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 봄. 사진 찍는 소리에 깨는 지원.

지원 아 씨, 놀래라. 지금 몇 시야?

봄 (웃으며) 11시. 왜 이렇게 놀라냐.

지원 일어나자마자 너 얼굴 봐서 당황했잖아. 오늘 알바는?

봄 오늘 알바 쉬는 날. 늦게 일어났으니까 네가 밥 차려.

지원 (궁시렁거리며) 아, 이청석이랑 밥 하기 싫어서 짜고 쳤지.

봄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애가 생사람 잡네. 얼른 아침이나 차려라.

청석 (이들을 보며 웃으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얼른 같이 밥 차리자.

## S#26 실내. 집, 부엌 - 아침

요리를 하는 지원이와 청석. 맛있게 먹는 청석과 봄을 보며 뿌듯해하는 지원.

## S#27 실내. 집, 거실 - 아침

거실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설거지, 청소, 식사 당번을 정하는 셋.

종이에 요일 별로 이름을 적고 있다.

## S#28 실내. 집, 화장실 - 아침

좁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나란히 이를 닦는다. 다 웃고 있다.

## S#29 실내. 편의점 - 낮

편의점에서 일하는 봄.

## S#30 실내. 집, 거실 - 낮

집에서 책을 보며 요리하는 지원. 거실에서 토익 공부를 하는 청석.

창 밖의 화창한 날씨, 어두운 날씨를 번갈아가며 보여준다.

나란히 누워서 낮잠을 자는 셋. 머리를 모아 누워서 끝말잇기를 한다.

청석 남산.

봄 산딸기.

지원 기지.

청석 지원아, 남산 가본 적 있어?

지원 아니, 없는데.

청석 그럼 우리 오늘 남산이나 갈까?

봄 (뭔가 안다는 말투로) 아~ 남산? 오랜만이네.

## S#31 실외. 옥탑방 - 밤

다같이 야경을 바라보고 있다. 이들을 비추고 도시의 야경을 보여준다.

지원 여기가 남산이라고?

청석 여기만큼 남산이 잘 보이는 데가 없어. 남산까지 언제 가.

봄 그래서 홍지원 씨, 여기 온 지도 거의 일주일 다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지원 야,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그냥 좋지.

청석 좀 자세하게 말해 봐.

봄 (거들며) 그래, 어떤 점이 좋은데?

지원 그냥... 혼자 살 때는 기쁠 사람도 없고, 마냥 외롭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희랑 살고

있으니까 가족이 생긴 기분?

봄 가족? 좀 감동인데.

지원 야, 설마 너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어?

봄 (웃으며) 아니지. 우리가 너한테 입주 선물을 왜 줬는데.

청석 재, 너 오니깐 진짜 좋아했어.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는 봄. 그러다 다시 몸을 지원 쪽으로 돌려 앉는다.

봄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도 했겠다, 앞으로 하고 싶은 건?

지원 일단 엄마 찾고 싶어.

봄 엄마 찾는 거 말고 다른 건 없어?

지원 음, 생일 파티? 우리 보육원에서 생일 파티 같은 건 안 했거든.

청석 그렇지. 예전에 난 내 생일도 싫어했어. 다른 애들은 생일파티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린 기대할 수 없으니까 굳이 있어야 하나 싶고.

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생일 파티를 꼭 하고 싶다?

지원 (민망해하며) 야, 맞는데 강조는 하지 마라. 너무 애 같잖아.

봄 (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놀리는 듯한 말투로) 귀여운 우리 지원이.

지원 (웃으며) 아, 진짜 뭐래.

청석 또 뭐 없어?

지원 그리고는 뭐... 너희 맛있는 거 많이 해 주기?

봄 (황당해 웃으며) 뭐? 그게 왜?

지원 아니 그냥, 너희가 내가 해 준 음식 맛있게 먹으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

봄 (진지하게) 내가 좀 미식가인데, 네가 해 준 음식 진짜 맛있긴 해.

청석 맞아, 원래 애 좀 까탈스럽거든? 근데 네가 해 준 건 잘 먹더라.

지원 너희 맨날 나 요리 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지?

청석 어, 어떻게 알았지?

셋이 동시에 웃는다. 상황을 환기하듯 (F.S)을 잡는 화면.

봄 그러면 어차피 내일 일요일인데 교회나 가 볼까? 지원, 어때?

지원 너희만 좋다면 난 같이 가도 상관없는데.

청석 그럼 같이 가자.

봄 근데, 너 저번에 가보지 않았어?

지원 어... 사실 앞까지 가서 문도 못 열어 봤어.

봄 (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같이 가줘야겠네.

청석 내일 늦게까지 폭 자다가 일어나서 가 보자.



## S#32 실외. 교회 앞 - 낮

지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셋. 어딘가 비장한 셋의 뒷모습. (F.S.)

교회 앞에 도착한 지원, 청석, 봄. 지원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제 눈 앞에 사진과

교회를 비교해 본다. 사진에서 교회로 포커스 아웃.

청석    우리 도착한 것 같은데.

지원    저번에 왔을 때는 더 커 보였는데, 지금은 좀 덜하네.

봄       (손잡이를 잡고 문 주변을 보며) 여기야?

지원    (다급한 목소리로) 잠시만.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고민 없이 교회 문을 힘차게 여는 봄. 하지만, 굳게 잠겨 있는 교회 문.

당황해 하는 봄과 눈을 꼭 감고 있다가 실눈을 뜨는 지원. 두세 번 더 문을 흔들며 보는 봄.

봄       아, 왜 안 열려!

청석    야, 교회 문 잠긴 것 같은데.

지원    아, 그러네...

청석    문 닫은 것 같지는 않은데.

봄       어쩐지 일요일인데 교회에 사람이 많이 없더라.

지원    (힘없는 목소리로) 어쩔 수 없지. 다음에 한 번 더 와보자.

청석, 축 쳐져 있는 지원에게 어깨동무를 한다.

봄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원을 쳐다 본다.

청석   괜찮아. 찾을 수 있겠지. 위로에 소질이 없어서 이런 말밖에 못하겠다, 미안.

지원   괜찮아, 나도 기대 많이 안 했어.

봄      그래, 다음 번엔 꼭 어머니 찾을 수 있을 거야.

타이밍 좋게 울리는 청석의 문자 알림 소리. 청석, 급하게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해 본다. 면접에서 최종 탈락했다는 내용의 문자 인서트.

봄      (청석의 폰을 뺏은 뒤 문자 내용을 보고) 불합격? 야, 이청석. 너 면접 잘 봤다며!

청석   면접은 잘 봤지... (한숨 쉬며) 편의점 갈래?

봄      네가 웬일이야?

지원   난 좋아.

노을이 진 하늘. 노을이 진 방향으로 걷고 있는 셋의 뒷모습. (F.S.)

## S#33 실외. 편의점 밖 테이블 - 늦은 저녁

봄 (과자, 소주를 내려놓고 맥주 캔을 청석에게 넘기며)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청석 좋은 일도 아닌데, 뭐.

지원 나도 궁금해.

청석 (먹던 음식을 내려놓으며) 뭐,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무시하고 그랬지.

봄 (큰 목소리로) 뭐? 뭐라고 그랬는데?

청석 진정하고. 솔직히 처음에는 분위기 좋아서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가족 관계 물어보는 질문에서 저렇게 답하니까 옆 지원자한테 관심 쏠리더라.

지원 이건 진짜 어이없네.

봄 야, 거기 알바 본대 어디야?

청석 아냐, 뭐 어쩔 수 없지.

봄 뭐가 어쩔 수 없어. 어딘지 말해봐.

청석 알아서 뭐하게~ (잔을 들며) 빨리 짬이나 해줘.

봄 (못 말리겠다는 듯이) 아, 애 진짜.

차오르는 소주잔의 인서트. 편의점 안에서 그런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알바생.

시간이 지나 조금 취한 셋.

지원 (취한 듯 하이텐션으로) 아니, 청석아. 너는 왜 소주를 안 마셔?

봄 애는 알쓰라 원래 맥주만 마셔. (웃으며) 나는 꽤 잘 마시지.

지원 맥주만 마시면 그 취하는 느낌이 있나?

청석 나는 원래 소주 안 마셔. 소주 마시면 토할 것 같아.

멀리서 취객 한 명이 비틀대며 다가온다. 청석이 취객을 보고 움츠러든다.

그런 청석을 보고 취객 쪽을 쳐다 보는 봄.

봄 야, 저 분 좀 도와드려야겠는데?

청석 야야, 가지마. 위험해. 가만히 있어.

봄 아니야, 너나 가만히 있어. 가서 부축이라도 좀 해드리자.

청석 (정색하며)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청석을 무시하고 일어나 취객한테 가려는 봄.

청석 (봄의 팔을 잡으며 소리친다) 아니, 가지 말라고! 왜 말을 안 들어!

깜짝 놀라는 지원.

봄 (얼굴을 찌푸리며)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청석 가지 말라고 하면 좀 가지마. 빨리 앉아.

봄 이거 놔.

어정쩡한 자세로 청석에게 팔이 잡혀있는 봄. 그 화면 앞으로 취객이 비틀대며 지나간다.

지원, 중간에서 눈치만 본다.

## S#34 실외. 집으로 가는 길거리 - 밤

봄이 먼저 앞장 서서 걷고, 뒤떨어져 걷는 청석. 캔맥주를 손에 들고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청석의 옆으로 가는 지원. 괜스레 먼저 말을 붙인다.

지원 많이 화났어?

청석 미안, 괜히 나 때문에.

지원 너 면접 결과도 그렇고 계속 기분 안 좋아 보여서.

청석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지. (조금 있다가) 이따가 집 들어가기 전에 남산 한 번 들릴까?

## S#35 실외. 옥탑방 - 밤

옥탑방에 앉아 있는 셋.

청석    사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청석을 진지하게 쳐다보는 봄.

청석    나 원래 내 과거 얘기 잘 안 하잖아. 고아원 시절은 뭐, 애랑 같이 나와서

          그렇다 쳐도 가정사는 아예.

봄        응.

지원, 캔 맥주를 훌쩍훌쩍 마시며 청석의 얘기에 집중한다.

청석    아빠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 매일같이 소주를 먹었어. 엄마도 그것 때문에 집

          나가고. 그냥 뭐, 매일 맞았지. 그러다가 그 인간이 술 때문에 죽고 고아원에 가게 됐지.

          그래서 난 소주를 못 마셔. 마시면 내가 그 인간처럼 될 까봐 무섭고 막 그래.

지원과 봄, 묵묵히 듣고 있다.

봄        아, 그래서 넌 중학생 때 들어왔구나.

청석    응.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병만 봐도 힘들었어.

          내가 잘못된 거 맞아.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각이 나서 말릴 수밖에 없더라.

          네가 그 사람한테 가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봄, 미안한 표정이다.

봄       진작 말하지. 미안.

청석     미안해 하지마. 원래 내가 먼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지원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

조용히 지원이를 쳐다보는 청석.

봄       (진지하게)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 (장난치듯이) 이번에 화낸 건 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줄게.

청석     (어이없다는 듯이) 그거 참 고맙다.

지원     근데, 네 얘기 들으니까 꼭 내가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셋의 모습 (F.S).

## S#36 실내. 집, 입구 - 아침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는 창문을 비춘다. 휴대폰 알람 소리가 들린다. 봄, 못 들은 듯

평화롭게 자고 있다. 밖에서 자다가 그 소리를 들은 청석이 졸린 듯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청석     (밖을 보며) 오늘 날씨 좋네.

화장실을 가려다 봄의 방을 바라보는 청석. 봄의 방문을 여는 청석.

청석의 시선을 따라, 자고 있는 봄을 비춘다. 청석은 자고 있는 봄을 보고 당황한다.

청석 (급하게 봄을 깨우며) 신봄, 너 오늘 편의점 알바 쉬어? 지금 10시 반인데.

봄 (잠에서 덜 깨 몽롱한 듯) 지금 아홉 시잖아….

(10시 28분-폰을 확인한 뒤) 아니, 뭐? 아, 잠시만. 거짓말이지?

청석 거짓말 아니니까 빨리 준비해. 늦었어.

봄 아, 씨… 진짜 망했다.

봄, 빠르게 방을 나간다.

## S#37 실내. 편의점 안 - 아침

봄, 서둘러 편의점에 들어간다. 헐레벌떡 뛰어온 봄을 지켜보는 편의점 점장.

점장 신봄, 지금 몇 시야? 왜 이렇게 늦었어?

봄 죄송합니다. 제가 전날에 늦게 잠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점장 (갑자기 표정을 찡그리며) 이런 애를 뽑는 게 아니었는데… 쫓쫓.

봄 죄송합니다.



점장, 창고로 들어간다. 평소와 같이 일하는 봄.

20대의 남성이 얼음 컵을 계산 안하고 뜯고선 안에 음료를 붓는다.

봄 어, 손님 그거 계산 하셔야 해요!

손님 네? 계산 했는데요?

봄 (당황스러워하며) 아... 손님, 아까 얼음 컵은 계산 안 하셨어요.

손님 아니 아까 살 때 계산 했잖아요.

봄 얼음 컵하고 음료는 별도상품이어서 얼음 컵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손님 아, 아니 계산하려고 했어.

봄 아, 네.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괜히 사람 도둑으로 몰고 가요.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드린 겁니다.

손님 아니, 저 지금 도둑으로 몰고 가신 건 맞잖아요. 예?

봄 아닙니다. 손님. 그냥 말씀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편의점 밖에서의 (F.S.) 실랑이를 벌이는 둘. 이윽고 나오는 점장.

손님을 보내고 점장에게 혼나는 봄.

점장 신봄, 오늘 지각도 그렇고, 진상 손님 대처도 그렇고. 너 일하기 싫어?

봄 (고개를 숙이며) 지각은 제 잘못 맞습니다. 그래도 진상 손님은 말로 해결이 안돼서….

점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걸 꼭 그렇게.

봄 죄송합니다.

점장 아까 말은 안 했는데, 지각한 것도 어제 술 마셔서 그런 거라며. 은지가 말하더라.

너 친구들이랑 여기서 술 마셨다고. (중얼거리며) 부모가 없어서 유도리가 없나….

봄 (당황한 목소리로) 점장님,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어요?

점장 고아라서 유도리가 없냐고.

충격 받은 봄. 잠시 아무 말도 못한다. 이윽고 입고 있던 유니폼을 계산대에 던지며

봄 네, 점장님 알아서 생각하세요. 월급은 오늘 일당까지 쳐서 보내 주세요.

점장 뭐라고?

편의점을 나오는 봄. 봄이 나가면서 울리는 다시 울리는 편의점 종소리. ♪♪♪

할 말을 잃은 듯 한참 가만히 서 있는 점장의 모습을 편의점 창문으로 보여 준다.

## S#38 실외. 집 가는 골목 - 낮

봄, 집 가는 골목에서 막막한 듯 한숨을 푹 쉰다. 그러고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봄.

청석 여보세요?

봄 야, 이청석, 옆에 지원이도 같이 있지?

청석 어, 왜? 바꿔 줘?

봄 아니, 스피커 폰으로 잠시 바꿔 봐.

청석 바꿨어. 옆에 지원이도 있고.

봄 애들아, 나 이제 폐기 못 가지고 간다. 편의점 회식도 못 하고.

청석 (급한 목소리로) 야, 신봄. 왜 된 일인데.

봄 그냥 그렇게 됐어. 저녁 맛있는 거 사 갈게.

봄,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는다.

## S#39 실내. 집, 입구와 부엌 - 오후

도어락 누르는 소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봄.

들어오는 소리에 지원과 청석이 뛰어 나온다. 손에 들고 있는 냉면과 냉면 육수.

청석 신봄, 무슨 일이야?

지원 알바 관두기로 했어?

봄 (신발을 벗으며) 야, 신발부터 좀 벗자. 좀 기다려 봐.

신발을 벗고 냉면과 냉면 육수 세 개를 부엌 식탁에 올려 놓는 봄.

청석 그런데 갑자기 웬 냉면이야?

봄 (웃으며) 그냥. 날씨도 더운데 갑자기 땀겨서.

지원 저녁 준비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 옷부터 갈아입어.

봄 (장난스레 두 손을 들고 좋아하며) 아싸.

방으로 들어가는 봄과 지원에게로 다가오는 청석.

청석 그냥 밝은 척하는 것 같지 않아?

지원 그러게...

식탁에 놓여 있는 냉면 세 그릇. 고명은 삶은 계란뿐이다.

하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들뜬 표정의 봄.

잘 먹겠습니다, 하는 봄의 말과 함께 맛있게 먹기 시작한다.

지원 (젓가락을 내려 놓으며) 이렇게 먹어도 맛있다.

봄 솔직히 냉면은 육수만 맛있으면 된다니까.

청석 파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

봄 야, 그냥 나 냉면장사나 해 봐? 대박인데.

청석 뭐래. 근데 아까 말했던 편의점 일은 뭐야?

봄, 청석의 말에 그릇을 가볍게 들고 국물을 마신다.

봄 아... 잘렸어. 내가 때려 친 거긴 한데.

지원 무슨 일 있었어?

봄 그냥 진상에, 더 심한 점장에... 이럴 바엔 관두는 게 낫다 싶어서.

지원 괜찮아?

봄 응, 괜찮아. 오히려 흥가분해. 옛날부터 그 점장 개 같았어.

청석 야, 차라리 잘 됐어. 신봄, 너 배우 하고 싶다고 했잖아.

봄 (웃으며) 야, 그런가? 나 이제 알바 그만 두고 배우 면접 보러 다닐까?

지원 와, 배우 멋있다. 나 어제 주방보조 알바 지원했어. 나도 빨리 알바 구해서 돈 벌게.

봄 지원이가 지원했네.

한숨 쉬는 청석. 라면과 상반되는 냉면의 인서트.

## S#40 실내. 집, 거실 - 아침

지원, 거실의 거울을 보며 나갈 준비를 한다.

청석    지원아, 오늘 어디 가?

지원, 못 들은 듯 대답이 없다.

청석    홍지원.

지원    (뒤돌아보며) 어? 나 불렀어?

청석    어, 어디 가냐고.

지원    나 면접. 떨린다.

청석    여기 오고 첫 면접이네. 긴장하지 말고 잘 보고 와.

가볍게 파이팅 해주는 청석. 청석의 응원에 웃으며 문을 나서는 지원.

문 닫히는 소리. 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뒤늦게 방문을 열고 나온다.

봄        야, 뭐야. 지원이 나갔어?

청석    지원이 오늘 면접 있다던데.

봄        아 진짜?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청석 오 알고 있었네?

봄 야, 당연하지! 나를 뒤로 보는 거야.

## S#41 실내. 집, 거실 - 오후

도어락 누르는 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지원. 부엌 불을 켜다. 안방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봄과 함께 옆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청석. 제 생일인 것도 잊어버렸다는 듯,

어리둥절해하는 지원. 생일 축하를 하며 거실 테이블로 케이크를 옮긴다.

봄, 청석 생일 축하해, 흥지원.

지원 (놀라며) 아니.... 오늘 내 생일이었어?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봄 우리가 누구야. 가족이 이런 거 챙겨야지. 누가 챙겨.

지원 진짜 고마워.

지원, 웃으며 케이크의 초를 분다. 당황한 표정의 봄과 청석.

봄 (지원을 치며) 야, 소원 빌어야지.

지원, 손을 모은다. 주섬주섬 뒤에서 선물을 꺼내는 봄.

봄        지원, 손 쥐 봐.

손을 내미는 지원. 봄은 지원에게 실팔찌를 쥐어 준다.

봄        생일이라 챙겨주고 싶어서 만들었어. 그게 끊어지면 소원 이뤄진대.

지원     아 진짜? 신기하다.

청석     (생색내며) 나는 음식 준비했어.

지원     (웃으며) 진짜 고마워. 팔찌도, 요리도. 진짜 최고의 생일이다.

행복한 웃음을 짓는 아이들. (슬로우로 보여준다)

그 순간 울리는 지원의 휴대폰 벨소리.

지원     (휴대폰을 꺼내며) 아, 잠시만.

전화를 받으며 거실 밖으로 나가는 지원.

거실의 조명이 그림자지면서 지원의 표정도 어두워진다.

지원     (깜짝 놀라며) 네?



## S#42 실내. 카페 안 - 오후

카페 안 (F.S.) 한 여성과 지원이 앉아있다.

## S#43 실외. 카페 밖 - 오후

골목에 서 있는 봄과 청석.

청석 부럽다. 지원이. 엄마도 만나고.

봄 그러게 15년 만에. 이게 말이 돼?

청석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겠지?

봄 그러겠지. 그 동안 정 많이 들었는데.

청석 어쩔 수 없지. 지원이의 진짜 가족이니까.

봄 좀 슬프다.

## S#44 실내. 카페 안 - 오후

아무 말 않고 계속 바라보기만 하는 지원. 엄마와 서로 바라본다.

(편집 단계에서 소리가 안 들어가고 지원의 모습이 슬로우로 들어간다.)

울 거 같은, 어색한, 행복한, 쑥스러워하는, 웃다 정색하는 표정 촬영.

(하지만 촬영할 때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위해 대사를 치도록 한다.)

지원 오랜만이네요. 엄마

엄마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미안해.

지원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만난 걸로 전 만족해요. 잘 지내셨어요?

엄마 너 없이 잘살았겠다. 우리 지원인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지원 엄마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엄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연락할 걸.

지원 근데, 엄마 나 왜 버렸어요?

엄마 미안하다. 지원아. 엄마 말 잘 들어줘... 지금 엄마가 암인데 당장 수술을 안 받으면 위험하대. 근데 병원비가 없어서..

지원 네? 암이요?

엄마 혹시 마련해 둔 돈 있니? 그냥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태 줬으면 하는데. 아무리 미워도 엄마잖아. 엄마 돈 없으면 죽어...

지원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엄마 그래, 지원아. 또 봤으면 좋겠다.

지원 네, 저 먼저 일어날게요.

## S#45 실외. 버스 정류장 가는 길 - 저녁

어둑어둑한 거리 말 없이 걷기만 하는 셋. 조심스럽게 봄이 묻는다.

봄        엄마 만나서 좋겠다?

청석     맞아. 너 엄청 보고 싶어 했잖아.

지원     그치. 한 번에 알아보겠더라. 보니까 딱 엄마구나 싶었어.

봄        어땠어?

지원     (한참 뜬을 들이다) 좋긴 하더라.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인다.

청석     (가리키며) 버스 저기서 타는 거 맞나?

봄        응, 맞는 거 같은데?

지원     애들아, 우리 좀 걷자. 나, 할 말이 있어.

봄        어? 여기 집이랑 엄청 먼데? 그냥 버스 타고.. (말끝을 흐린다. 지원이를 보다

청석의 눈치를 한 번 보고) 아.... 이런 밤엔 산책이지

청석,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지원 (귀를 만지며) 그... 엄마 만나서 좋았어. 좋았지. 근데 내가 예전부터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물어봤거든.

봄 그게 뭔데?

지원 날 그 동안 안 찾다가 왜 이제야 찾았는지. 엄마는 나 언제든지 찾을 수 있었거든.  
내 보육원 어딘지 아니까.

서로 지원의 눈치를 보는 봄과 청석.

지원 그거 물어보니까 엄마가 암이래. 근데 수술비가 부족하대.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연락 드리겠다고 했어.

어떻게 반응 해야 할지 모르는 봄과 청석.

## S#46 실외. 길거리와 이어지는 가로등 놀이터 - 밤

지원이 말을 끝마치고 고개를 돌리자 보이는 아무도 없는 가로등 놀이터.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하는 지원.

다시 보는 가로등 놀이터에는 가로등 밑에 한 여성과 아이가 있다.

## S#47 실외. 놀이터 - 밤

아무 말 없이 시소 쪽으로 걸어가는 지원. (카메라는 지원의 등 뒤에서 지원의 그림자로 앵글을 바꾸고 지원의 그림자는 시소에 앉는다.) 그러자 뒤에서 엄마의 그림자가 등장해 지원을 밀어준다. 하지만 이윽고 봄과 청석의 그림자가 등장하고 엄마의 그림자는 화면 밖으로 나간다. 봄과 청석의 그림자가 같이 시소를 탄다. 세 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림자. 도중에 실팔찌가 끊어진다. 실팔찌 인서트로 이어진다.

## S#48 실내. 집, 거실 - 낮 (쿠키영상)

거실에 모여있는 셋. 그 때, 울리는 청석의 휴대폰 문자 알림.

청석, 제 휴대폰 화면을 들어 문자를 확인한다. 문자를 보고서 표정이 밝아진다.

청석 (폰을 들어 보여 주며) 애들아. 나 면접 붙었다.

지원 야, 뭐? 붙었어?

봄 와.... 난 지금 떨어진 작품 시나리오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역시 될 놈은 된다고. 부러운 놈....

청석 야, 넌 대체 언제 붙냐?

봄 나중에 배우 신봉 싸인 비싸지기 전에 미리 받아 뒀.

서로 장난을 치며 웃는 셋. 청석을 축하해 주는 지원과 봄.

**-The end-**